



누가 농업을 육체노동, 1차 산업이라 했는가!(I)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환경은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방식인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차 산업인 쌀 한 가마니의 부가가치를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농업을 뜻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의 의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화 농업, 선진화된 글로벌 농업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샘터사에서 펴낸 “글로벌 스탠더드” CEO 6인의 조언 중 (주)하림 김홍국 회장의 선진화된 글로벌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쌀 한 가마니의 경제학

이런 가정을 해보자. 같은 조건, 같은 자본금으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똑같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치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만 다를 뿐 모든 환경이 같다. 사업이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똑같다. 그렇다면 그 사업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은 농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열이면 아홉,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 원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이 제품화 과정을 거치고 식품개발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올려 유통되는 3차 산업이다. 이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착된 농업에 대한 정의이다.

닭을 예로 들어보자. 닭을 사육하는 과정은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1차 산업이다.

그런데 닭이 공장에서 가공되면 2차 산업이 되고 그것이 유통과정을 거치면 3차 산업이 된다. 자금이 투입되는 시기는 1차 산업인 농장에서다. 종자를 개발하고, 사료를 들이고, 예방접종을 시키고, 부화에 이르는 여러 공정을 거치게 되고, 마침내 공장으로 옮겨져 가공과정을 거친다. 1차 산업이었던 닭 사육이 돈으로 나타나는, 즉 수익

을 내는 시기는 바로 이때다.

쌀 한가마니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6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떡을 만들면 가격이 얼마가 될까? 혹은 얼마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떤 떡을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쌀 한 가마니로 떡을 만들면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16만원짜리 쌀 한 가마니에 약간의 기술과 재료를 투입하여 6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그 쌀을 가지고 요즘 인기있는 '아침햇살' 류의 쌀음료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자그마치 4~5백만원어치를 만들 수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고 생명공학 제품을 만들어 보자.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무한대로 치솟는다. 이것이 바로 농업이다.

1. 부가가치 창출에 승부를 걸어라, 그것이 농업 글로벌이다

하림은 1차 산업인 농업을 2·3차 산업인 식품제조·유통산업으로 변모시켜 농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을 입증했다. 그 힘은 혁신적인 경영구조에서 나왔다. 하림의 경영구조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Vertical Integration), 즉 수직통합경영이다. 수직통합경영을 통해서 1차 산업인 농업을 2차, 3차 산업인 식품제조·유통산업으로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농장에서 닭의 발육 상태를 살피고 있는 김홍국 회장

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환경은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이다. 경영방식에 따라서 1차 산업인 쌀 한 가마니의 부가가치를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이런 경영들이 사실상 보편화되어 있다. 농업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재배와 사육을 의미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재배, 사육, 가공, 무역, 유통, 설비, 건설까지를 포함한다.

농업을 뜻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의 의미도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과거 농업의 개념은 토지를 이용하여 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을 하여 의식주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이었다. 그러나 요즘 농업의 정의는 복합화, 산업화된 개념으로 바뀌었다. 즉 단순한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가공, 유통, 무역 및 농업시설의 건설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세계화 농업, 선진화된 글로벌 농업인 것이다.

'농업' 하면 우선 넓고 기름진 땅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농업의 중심은 식품산업이다. 선진국에



서는 무엇보다 시장을 중요하게 여긴다. 땅보다 중요한 게 바로 생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식품공장이며, 그것보다 중요하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을 곁에 두는 일이다. 좋은 시장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상품이 개발되고 따라서 생산성도 향상된다. 시장의 요구에 따라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을 잘 개발하면 품질도 우수해진다. 좋은 시장 하나가 농업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세계에서 농업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 연간 농업 무역 흑자를 100억 달러 이상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는 96억 달러의 농림축산물을 수입하고 16억 달러를 수출하여 농림축산물 무역에서 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네덜란드는 전체 농산물의 60%를 가공 수출하고 있다. 곧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쌀 한 가마니의 예에서 보듯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부가가치 창출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식품산업 종사자들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소비자 욕구에 맞게 따라가는 것이다. 어떤 상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생각에 제품을 맞추는 것이 선진 경영이다.

일방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을 개발하고 생산, 유통시켜야 한다.

글로벌 농업 경쟁력은 소비자의 생각을 미리 앞서가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주식이 '쌀' 이라고?

우리가 먹는 주식은 쌀이다. 정말 그럴까?

60년대에는 쌀이 우리 먹거리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쌀이 우리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미만이다. 먹거리의 50% 이상이 돼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8%도 안되는 쌀을 주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식량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쌀을 중심으로 한 탄수화물 식량이 주식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기를 중심으로 한 단백질 식품으로 먹거리 환경이 변화해가고 있다. 국민 소득이 향상되고 부가가치 높은 먹거리가 다양하게 생겨났기 때문이다.

요즘은 매일 고기 안먹는 가정이 없을 정도다. 옛날에는 1년에 명절, 생일 때 서너번 먹는게 육류섭취의 전부였다. 지방과 달리 단백질은 먹어도 살이 덜 찐다. 그래서 육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네덜란드는 100년 전 빵을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99%의 국민이 공장에서 가공되어 나온 빵을 사먹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밥을 용기에 담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햇반' 류의 제품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뿐인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김치조차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제품이 빠르게 식단을 점령해가고 있다. 이는 10년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김치를 사다 먹으면 게으른 여자 취급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40% 이상의 주부가 김치를 사다 먹는다. 우리나라 먹

거리 환경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정책을 펴고 있다. 소비자들은 주식을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해 가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과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쌀을 주식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쌀은 남아돌고 단백질 식품인 고기는 수입에 의존하는 기이한 현상을 맞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언밸런스한 현상이다.



하림의 신선육 가공 공장 내부(선별 포장라인 전경)

1. 소비자는 어떤 음식을 원하는가?

다른 측면을 보자. 주방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식품공장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세계적 추세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주방에서 조리해 먹는 것이 줄어든다. 따라서 가공식품이 발달한다. 예전에는 가공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 방부제 첨가와 위생상태, 유통기간 초과 등이 그것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가정에서 쓰는 양념을 직접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군가는 위생상태를 탓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가정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위생적이다. 제품을 잘못 만들면 소비자들이 외면한다. 품질과 위생은 가공식품의 생명이다. 앞으로도 식품산업은 무한대로 발전할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점점 기능화되어 갈 것이다.

또한 식량산업은 다른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 중국에서 원자재 값이 폭등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산업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한국이나 여타 주변국은 즉각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

자재 값이 폭등한 이유는 중국 식량산업의 변화 때문이었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식량 소비량도 많다. 세계 모든 요리의 집합지라 불릴 정도로 음식문화도 다양하다. 최근 중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로서 엄청나게 늘어난 육류소비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육류소비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못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육류 섭취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육류를 대량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 덩달아서 관련 곡물이나 채소값이 오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즉각 다른 나라의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의 식단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산업이 낙오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의식은 굉장히 보수적이며, 변화를 빨리 쫓아가지 못한다. 우리 농업 발전이 다른 나라에 뒤쳐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농업은 소규모 농사에 집착한다. 반면 선진국은 '기업화 농업'을 하고 있다. 우리는 농업의 기업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영세하고 작은 농업이 진정한 농업인 양 인식한다. 이런 생각들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자신의 텃밭에 고추를 심는 것도 농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라면 농업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우리는 농업을 육체노동을 하는 산업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대 농업은 노동집약적 대량 생산 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임금이 싼 중국이 닭 한 마리를 생산할 때 인건비가 1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인건비가 수십배나 비싼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적은 50전에 닭 한 마리를 생산하고 있다. 인건비는 미국이 더 비싼데 왜 그럴까. 이는 미국이 설비 집약적 대량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미국보다 월등히 싼데도 현재 중국의 닭 한 마리 생산원가는 미국보다 30% 비싸다. 농업의 변화는 농사짓는 기술혁명도 아니고 식품을 만드는 기술혁명도 아니다. 일은 기계가 다 하고 사람은 그 기계를 다루는 체제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비 집약적 생산 체제의 구축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미국은 *노동생산성이 우리의 약 100배에 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농민 100명이 할 일을 미국 농민은 혼자서 해내고 있는 것이다.

*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 : 노동생산성이란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들여 얼마나 생산했는가'를 따져보는 잣대로 생산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 생산효율, 기술수준 등을 알아보는 지표이다.

1. 농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농민 보호정책

영세한 농민들은 국가가 농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을 예로 들어보자. 원래 선진국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해 자유의사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벼 수매를 놓고 생각해보자. 과거 협동조합은 벼를 수매할 때 일정 부분을 출자금으로 떼었다. 자유 의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경우, 아니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스템이었다. 정부가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협동조합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망하지 않는다. 정부의 완벽한 지원 체제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망하는 협동조합이 흥하는 협동조합의 10배나 된다. 운영을 잘못하면 망한다. 정부로부터 무료 보조란 당연히 있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경쟁 방식이 오히려 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업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정부가 개입한다. 정부 지원이 농업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힘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비 자본주의

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산업이고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 농업은 물론이고 모든 산업이 잘 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2차, 3차 식품산업의 발전 또한 외국보다 한참 뒤로 처지게 된다. 외국의 협동조합은 모든 것이 자기 책임 하에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망하는 가운데 새롭게 경쟁력을 갖춘 농업 시스템이 생겨난다. 이런 면에 있어 자본주의는 비정하다. 하지만 비정한 가운데 열성 시스템이 제 거되고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 살아남아 결과적으로 인류를 풍족하게 한다.

2. 열악한 환경에서 일군 네덜란드 농업 신화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처럼 기막히게 좋은 곳도 드물다. 흔히 농업하기 좋은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땅이 넓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를 꼽는다. 이것은 대단히 큰 오산이다. 이는 현대 농업이 땅을 일구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땅이 좁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라. 그들의 농업생산성은 땅 넓은 나라들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일조량이 아주 적다. 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은 세계에서 제일 발달했다. 그 작은 나라가 해외에 농산물을 매년 약 400억 달러씩 수출한다. 농민소득은 1위, 국민 평균 소득보다 농민소득이 월등히 높은 나라이다. 그 나라에서 농업은 매우 중요하며 농업인이 존경받고 있다.

대학만 해도 그렇다. 네덜란드에 있는 농업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에 들어갈 실력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네덜란드 농민 대부분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경영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농업이 국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오이 생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들은 유리 온실 농업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서 설비집약적인 대량 생산체제를 통하여 우리보다 훨씬 낮은 원가에 오이를 생산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곡물 생산량이 아주 적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 그들은 곡물을 재배하는 대신 싼 곡물을 수입해서 고도로 집약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가축사육과 가공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부여한 다음, 완제품인 가공식품을 다시 수출하여 막대한 농업 무역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글로벌 농업이고 이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밭을 갈고 논을 일구는 농업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농업에 대한 개념을 열린 마음으로 바꾸는 노력이 농업인들 스스로에게 필요하다. 흔히 농사를 몸으로 짓는다는 표현을 한다. 그러나 농사를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은 구시대의 발상이다. 이제 농업은 두뇌사업이다. 공부하지 않으면 남보다 뒤쳐진다. 어떤 식품이 미래 식단을 지배할지, 어떤 식품이 유행할지, 미리 예상하고 앞서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 다음호에 계속...

■ 지은이 : 아주대, ■ 펴낸이 : 김성규, ■ 펴낸곳 : (주)샘터사